



◇원색한댄싱커를 탄생! 12일 열린 연꽃미팅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춤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 “내 작은 누구일까?”

## 대불청·듀오, 2002사랑의 연꽃미팅 페스티벌

### 서먹서먹 분위기 노래·춤으로 날리고...

### 천생연분 찾기에 가슴 두근두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와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김혜정)가 개최한 '2002 사랑의 연꽃미팅 페스티벌'이 23일 서울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불교계 선남선녀 100명은 '불교 상식 열전퀴즈', '사랑의 연꽃 토크 전달식', '커플매칭'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는 기회를 가졌다.

자, 그럼 불교계와 듀오가 함께 하는 공개미팅을 시작합니다.

팡파르 음악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연꽃미팅 페스티벌'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앉전하기만 한 선남선녀들은 서로 눈치 보기가 바쁘다. 처음 만난 사이니 당연한 일이다.

어색한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역시 노래, 사회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테이블마다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각 테이블을 조장을 중심으로 토크를 동치 노래를 부르며 율동과 박수가 터져 나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번에는 '혼성댄싱 공연'을 하겠다고 사회자가 선언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춤을 추라니, 일순간 좌중이 술렁인다.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끼리 무대에 올라 춤을 추라"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린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이게 하는 데는

절호의 기회.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무대로 뛰어 나가고 여기 저기에서 따라 뛰어들면서 춤 경연이 시작됐다. 수줍은 듯 망바닥만 보지만 하면 배우 정 씨(27, 방송작가, 파트너인 노형식 씨(34, IT업체 근무)가 격렬한 디스코를 추자 그녀 또한 소매를 걷어붙였다. 두 사람의 춤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 사람들 정말 프로'란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곧 테이블마다 자기 팀에서 나간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 씨가 문제를 낸다. "부처님 아들이름은?" "아난이런가" 답답하다는 듯 정 씨가 거른다. "좀 이름이 이상한 이름인데..." "이상하다... 목련존자?" "통과!" 평소 잘 알던 내용도 나와서 풀다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하다.

막 자리로 돌아온 처녀가 총각에게 말한다. "라출라잡이요." 퀴즈를 풀며 들은 것속말을 할 정도로 친해진 모양이다. 라출라가 왜 그리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들은 어느새 다른 팀의 게임을 지켜보기에 바쁘다.

어느새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이제 마지막 순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찾아 쪽지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 넣으면 된다. 상대의 눈치를 탐색하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 인연인가 알기가 어렵다. 전 생과 현생에 지은 업대로 천생연분을 맺을 수 있기를 빌어본다.

대불청과 듀오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월정사 탐방, 해인사관광, 무안 연꽃축제 참가 등 다양한 불교관련 문화 행사를 불자 미혼남녀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nia.com

소설가 남지성의 化緣에서 읽은

# 내 안의 너 안의 나

## 나의 아버지

오늘은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의 고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대학을 나와서 조그마한 스포츠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2살의 예비신랑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년은, 3년 전에 어머니와 사별하고 외롭게 생활하고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했습니다. 손위의 누나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이 자연스럽게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모신다면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이 자신을 데리고 산다 해야 말이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청년은 씩 웃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식사는 물론 빨래 청소까지 도맡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67살인 아버님은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계실 때부터 해오던 살림을 지금도 그대로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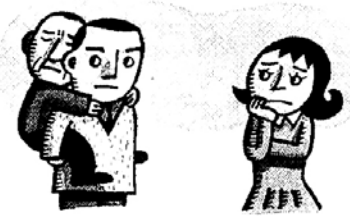
병마와 싸우던 어머니가 집안에 계시지 않은 것만 달라졌을 뿐, 외형적으로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그들 가정은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해 왔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점점 줄어들고 그와 비례해 담배를 피우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중에 고요로 앓고 있는 저를 업고 이병원 저병원 문을 두드리면서 애타게 의사 선생님을 부르시던 아버님의 음성도요. 저를 목욕탕에 데려가실 때마다 저를 위해 올려놓으시고는 올라간 수치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던 아버님의 눈길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 놓고 있는 청년의 오른쪽 손목엔 얇이 굵은 단추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끼고 있는 단추를 바라보다가 아버님도 종교를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집안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해드렸던 것처럼 아버님은 지금도 천수경, 금강경 같은 테이프를 틀어 놓고 혼자 경을 외우신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미루어보면 아버님은 딱 자상하고 따뜻한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공무원이면서 가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이 노년에 이르러 자식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하니, 산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고민을



## 늙은 아버지 두고 결혼할 수도 없고...

말고는요. 청년은 그런 아버님을 뵈 때마다 아버님이 겪고 계시는 외로움이 가슴깊이 다가와서 혼자 몹시 힘드셨다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결혼 날짜를 잡고난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교제를 할 때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다던 신부가 막상 결혼 날짜를 잡고나자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틴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청년은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신부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었다 했습니다.

돌변한 신부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낀 청년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것이 신부 어머니와 언니들의 설득 때문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어머니와 언니 입장에서 그런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으로서서는 아버님을 모시지 않는 결혼 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절의 말만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공 하나를 사기가 몹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축구공을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님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두고 어떻게 대할까? 하고 혼자 속으로 고민하던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소원대로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버님을 재혼시키셔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절이나 고향에 내려가셔서 농사도 짓고 허드렛일도 하면서 조용히 수행자로 살게 해드리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면 어떨겠느냐고요.

그러자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세 번째 방법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방법을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아버님과 진지하게 의견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부자가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세 번째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습니다. 저라면 그 방법을 택할 것 같아서요. 化緣 (02)704-3577

## 지친 그대에게 뜨거운 포옹을...

포옹

이것도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에게서 어색한 표현법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도 포옹은 익숙한 감정 표현법이다. 약속이 자연스런 인사법이 된 것처럼, 지난 월드컵 경기 때 팔을 벌은 우리 선수들은 거의 어김없이 감독이나 코치에게 달려가 포옹을 했다. 며칠 전 아시안 게임의 마라톤 우승자 이봉주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감독과 포옹을 했다.



말이 필요 없는, 아니 말을 해서도 안될 순간의 포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감임이 분명하다.

고단한 직장 생활에 지친 아내나 남편에게, 시험 성적이 안 좋아 풀죽은 아이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에 마음울음을 하는 동료에게... 뜨거운 포옹 한번쯤 어떨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무 말도 없는 거다. 괜한 얘기, 뻔한 얘기,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의 말은 어색함의 표출이다. 그러한 심리 상태로는 진정한 포옹이 불가능하다.

◆가을나들이=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23일 계룡산 동화사와 유성온천으로 가을나들이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복지관 앞. (02)929-7650

◆기획강좌=서울시립노인복지센터는 22, 29일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에서 기획강좌를 마련한다. 22일은 '근대서울의 공간과 경관 변천' 주제의 강좌가, 29일은 '한양의 탄생' 주제의 강좌가 개최된다. 11월4일에는 서울역사박물관 탐방을 한다. (02)739-9501

◆무료법률상담=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29일 오후 3시 복지관에서 김삼화 변호사를 초청해 무료법률상담



행사를 연다. 예약 및 문의는 02578-1515

◆무료이용서비스=서울 마포 보사노인복지관은 29일 블루클럽 김춘희 사장의 협조를 얻어 무료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3273-6692

◆무료이용서비스=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27일 오전 11시 복지관 지하 2층에서 무료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2203-9400

◆무료특강=한국인성개발연구원은 11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원남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중년의 위기 관리' 주제의 강좌를 연다. 강사는 홍신대 최혜숙 교수. (02)766-3455

##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쉬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바람 냉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공고

법인사찰등록증 재교부신청

본종단은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법인사찰 등록증 일체를 재교부코저 공고합니다

1.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주지신분증
2. 사진(반명함판): 5장
3. 교부기간: 2002년 11월 1일 ~ 12월 25일까지 (중도납부시에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국 미등록 사, 암 등록 받습니다

- 문의처: (061)433-2233, 433-3233
- 사무국: (062)224-1080

2002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주소: 전남 광진군 음전면 개신리 391(음전사)  
증무원장 석정암

현대불교신문사 창간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지장도량

## 옥불금룡사

회주 김법공(德龍) 011-781-0218  
주지 최수임(行天) 018-337-1244

회장	최영륜(性大)
지장회	이동현(性法)
해외성지	홍경교(大願行)
방생회	정옥련(大衆華)
산악회	김미금(自性華)
자비회	정재숙(慈悲行)
후원회	최옥림(天錦華)
홍보부	김경렬(性淨)
행자	진오(永辰)
상조회	권석조(性圓)
관음회	김태숙(普明華)
보현회	이강남(圓明心)
문수회	구순자(淸淨華)
연화회	민명성(修德華)
달마회	정하희(功德華)
총무	홍춘교(普提心)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61-28호  
**02)383-3346**